오늘의 게시판

제 16회 인형극과 함께 하는 국화축제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청 광장

행사 〈16일〉

▲제 16회 인형극과 함께 하는 국화축제=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청 광장. 국화와 메리골드·페츄니아 등 백만송이 전시. 한지공예품 150점·꽃꽂이와 압화 작품 300점·참숯공예품 150점·풍선장식품 150점 등 전시.

▲남광주시장 한마음축제=오후 1시30분 광주시 남광주시장 광장.

〈17일〉

▲BIE 사무총장(Vicente Gonzalez Loscertales) 초청 설명회=오전 9시50분 여수시청 상황실.

▲119 대축제=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금호패밀리랜드.

▲충장로축제 기념 전야제=오후 6시 도청 앞 특설무대.

공연

▲제 14회 임방울 국악제 전야제=16일(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예선은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문예회관 소극장, 광산문예회관 등에서 17일까지.

전시

▲프랑스 문화원 패션영상전=21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신세계 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고보연'=2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 현장프로젝트 '우리의 땅-새만금전'=25일까지 지산갤러리.

▲가톨릭미술가회 '사랑과 영혼전'=18일까지 상계갤러리.

▲화가의 지갑전=18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충장로축제 기념 기획초대 '희망 바라보기' 공예·조각전=17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5인전=16일까지 광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광주대 캐릭터조형학과전=16일까지 무등갤러리 본관.

▲순수미술전 원우회=13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광주 충장로 축제 우표 전시회=20일까지 광주우체국 1층 전시장.

▲광주비엔날레 기념 'Paper Propose전'=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미술 오케스트라'=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타향속에 삶과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역사속의 오늘

▲마리 앙뜨와네뜨 처형(1793)

▲혜민관 설치(1901)

▲이승만, 미국서 환국(1945)

▲음악가 현석 현제명 세상 떠남(1960)

▲제5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당선(1963)

▲교황 요한바오르 2세 피선(1978)

▲동서고속도로(대전~광주 175km)기공, 후에 올림픽고속도로로 개명(1981)

▲장한나, 로스트로포비치 첼로콩쿠르에서 최우수상 수상(1994)

▲한국군 상록수부대 150여명 동티모르에 파병(1999)

▲이미자,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수생활 40년 기념공연(1999)

뉴스퀴즈

34.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수백만명의 자활을 도운 공로로 빈곤퇴치 운동가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들이 가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지속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무보증 소액 창업대출)'와 같은 획기적인 빈민구제 프로그램을 벌여왔습니다. 제8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도 선정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무하마드 유누스 ②조시 부시
③빌 클린턴 ④토니 블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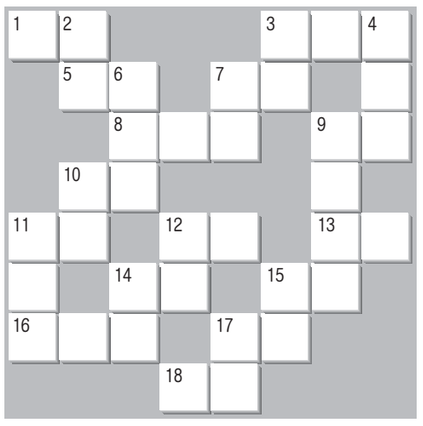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23 >



→ 가로풀이

1.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 또는 그런 법원. 항소(抗訴)에서는 초심의 재판, 상고(上告)에서는 항소의 재판을 이른다. 대법원은 그가 유죄라는 ~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3.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남자. 5.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 또는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함. 또는 그런 진술. 7.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8.절지동물의 머리 부분에 있는 감각 기관. 후각,촉각 등을 맡아보고 먹이를 찾고 적을 막는 역할을 한다. 9.한꺼번에 되게 당하는 손해나 곤란. 그는 개구쟁이 동생에게 늘 ~을 먹곤 한다. 10.사람의 물결이란 뜻으로,수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그는 ~ 속으로 사라졌다. 11.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12.생물이 살아 있는 연한. 또는 사물 등이 사용에 견디는 기간. 건전지의 ~이 다하다. 13.상업을 위해 항해하는 여객선,화물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14.잠을 자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함. 나는 치통으로 ~의 밤을 보냈다. 15.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영토 ~. 16.물체의 모가 진 가장자리. 침대 ~에 걸터앉다. 17.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 버려진 땅을 개간한 토지는 양반들의 ~가 되었다. 18.싸움이나 경기 등에서 상대편을 계속해 패배시킴. 그는 강호들은 ~하고 단숨에 결승에 올랐다.

↓ 세로풀이

2.재판의 기초인 사실 관계의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 ~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 3.지붕 같은 곳으로 가리지 않은 한데. ~ 극장. ~온천. 4.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든 설탕.→각사탕. 6.골프에서 18홀을 기준 타수(打數)인 파(par) 이하로 한 바퀴 도는 일을 이르는 말. 7.탄환의 뇌관을 쳐 폭발하게 하는 송곳 모양의 총포(銃砲)의 한 부분.→격침. 9.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또는 같은 민족끼리 해치며 싸우는 일. 그의 아들들은 재산 분배 문제를 놓고 고소니 맞고소니 하면서 ~을 벌였다. 10.사람 얼굴의 생김새를 이르는 말. 그는 첫 ~이 참 좋았다. 11.외삼촌의 아내. 12.물의 겉면. 적당한 강바람에 배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갔다. 14.이롭지 아니함. ↔유리. 15.가루우유. ~를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였다. 17.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길고 푹신한 의자. 거실에 ~를 놓다.

〈함께 풀어봅시다 222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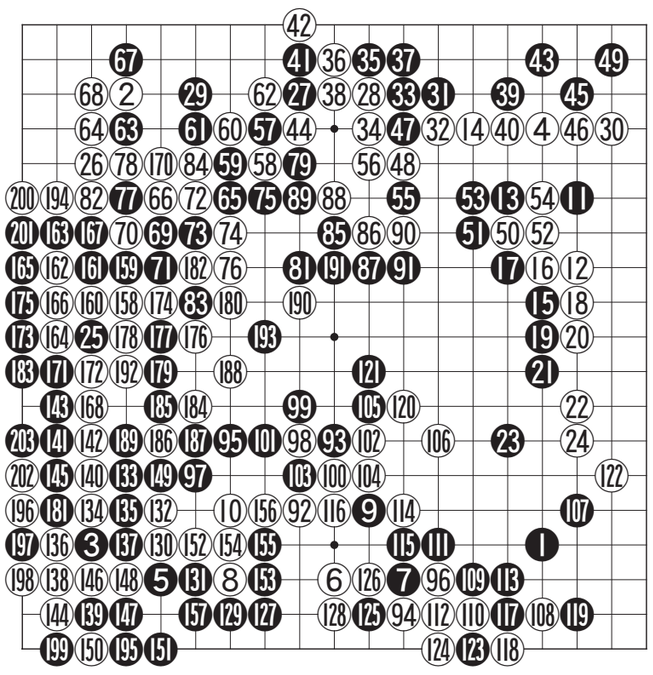
박정자·광주시 북구 우산동

김동욱·광주시 동구 산수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대역전승 총보(1~203)

白 옥광석 〈광주시교육청 A〉 黑 서재중 〈나주시청 A〉

이 바둑은 203수 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옥광석 5단이 중앙 백 대마의 타개에 실패, 대마가 함몰하면서 서재중 5단의 대역전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 대마는 사실 여러번 살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한대로 좌변에 181로 있는 수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후수로 착각하는 바람에 잇지 못하고 있다가 거꾸로 181을 당해서는 대마가 사는 수가 없었다.

초반전은 흑 31로 우상귀에 쳐들어간 수가 시기상조였다. 흑 49까지 우상귀를 도려내기는 했으나 왼쪽의 흑 두점이 약화된데다가 백이 두터워져 고전의 원인이 된다.

상변의 접전에서 백 66으로 들여다 봤을 때 흑 69가 또 실수로 이 수로는 170의 자리에 지켜둬야 했다. 이 수로 인해 백 84까지 흑 몇점이 잡혀서는 백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비세를 의식한 서 5단은 과감한 중앙작전을 펼쳐 백의 실수를 유발하여 대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이다.

흑 203 수 끝. 흑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이세돌, GS칼텍스배 7연승

이세돌 9단이 제1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리그에서 7전 전승으로 대국을 마감했다.

이 9단은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마지막 대국에서 이창호 9단에게 165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반면 이창호 9단은 이세돌 9단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3승4패를 기록, 차기 대회 시드 확보에 실패했다. 박정상 9단은 박영훈 9단을 꺾고 리그 전적 2승 5패로 대국을 마감했다. 최철한 9단과 이세돌 9단이 격돌하는 제11기 GS칼텍스배 도전 5번기는 오는 11월 4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6일(음 8월 25일 戊寅)

子 36년생 큰 고통은 없다. 48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60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72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84년생 신중한 생각으로 앞일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2, 39

丑 37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상쾌한 하루로다. 49년생 낭설이 많을 수니 신중하게 처신하면 대손은 없다. 61년생 중인이 음모한다. 73년생 집안이 소란하니 침착하게 수습하라. 85년생 남의 입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04, 26

寅 38년생 외형을 줄이고 실리로 바꾸면 득재가 있다. 50년생 새로운 기쁨을 얻는 계획이 성립된다. 62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동업은 불화가 될 수 있다. 74년생 혼자 사는 여자에게 기회가 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23, 27

卯 39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에 집중하라. 51년생 원한 맺힌 미운 사람 용서를 해라. 적군이 품에 든다. 63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을 하지마라. 75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리로다. 행운의 숫자 : 12, 33

辰 40년생 가족을 보살펴라. 52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64년생 이면에 불씨가 있으니 정확하게 꿰뚫어보라. 76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믿어도 살펴보라 주변이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 21, 30

巳 41년생 새 일이 불편하나 길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 53년생 신규사업에 참여치 말고 실리 쪽으로 점검하라. 65년생 옛 인연을 끊지 않으면 중요한 협조자로 변한다. 77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하니 다행한 하루로다. 행운의 숫자 : 08, 25

午 42년생 희망은 속삭이나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54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되는 일도 망친다. 66년생 숨을 돌리고 이웃에 자비를 베풀어라. 78년생 아직은 빠르니 한 번 더 생각하고 전진하면 손재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3, 39

未 43년생 앞 일이 걱정되나 흉사는 없으니 걱정은 하지마라. 55년생 물건을 조심하면 손해는 없으리라. 67년생 시기상조이나 터전은 확실히 마련된다. 79년생 옛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좋은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10, 33

申 44년생 앞 다투어 나가니 서로가 손재로다. 56년생 모친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68년생 주변을 살펴보라 흉계가 생길 수다. 80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니 인내하며 화해하면 실마리는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 25

酉 45년생 마무리를 잘하면 어부지리 할 수로다. 57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실리를 추구해야 하리로다. 69년생 시기상조이니 자기 사람을 확보해야 한다. 81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8, 26

戌 46년생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로 해결하라. 58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70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며 현실에 만족하라. 82년생 희망의 설계가 생성되니 준비하며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05, 37

亥 47년생 모든 일이 순항하니 적절히 외형을 줄이고 실리에 집중하라. 59년생 횡재수를 기대마라 노력으로 이루어라. 71년생 생기가 발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생성한다. 83년생 새로운 만남은 성공이다. 행운의 숫자 : 13, 2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753>

Cut it out!

그만 좀 쫑알거렸으면 좋겠다

A:**Cut it out**, Randy.
B:I'm trying to help you.
A:I know what I'm doing. I don't need your advice.
B:I don't like to be a back-seat driver, either.

A:**그만하라고**, Randy야.
B:나는 널 도우려고 하잖니?
A:내가 알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충고 필요 없어.
B:나도 운전석 뒤에서 꿀 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고 싶지는 않다구!

Cut it out =Stop it! : (활동을) 마치다, (재잘거림 등을) 그만하다.
advice : 충고
- give[offer] (someone) a piece of advice.
(누구)에게 충고 한 마디하다.
- take[follow] (someone) advice.
(누구의) 충고를 따르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53>

ちょっと高(だか)すぎない?

너무 비싸지 않아?

A:ねえ、ちょっと、この時計(とけい),いいでしょう?
B:どれどれ、見(み)せて。うん、シャネル?いいけど、**ちょっと高(だか)すぎない?**
A:大丈夫(だいじょうぶ)大丈夫。10年間、貯(た)めてきた'へそくり'があるから。
B:ええ、そんなのどうやって隠(かく)してこられたの?

A:저기, 잠깐봐. 이 시계 괜찮지?
B:어디어디, 보여줘. 응, 샤넬? 괜찮긴한데..너무 비싸지 않아?
A:괜찮아, 괜찮아. 10년동안 저축해온 비상금이 있으니까.
B:음..그런걸 어떻게 숨겨둘 수 있었던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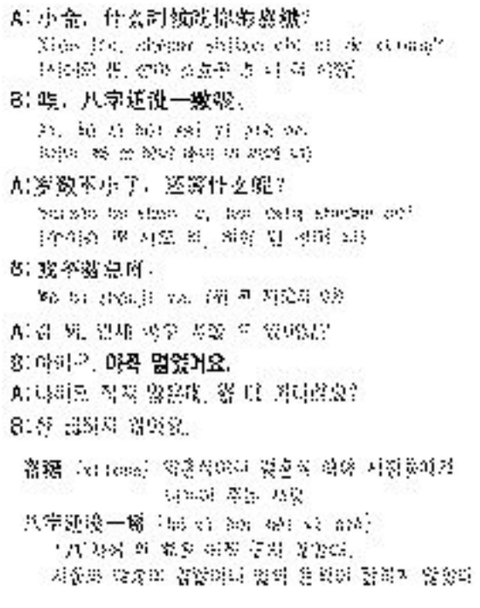
どれどれ : 어디어디
大丈夫(だいじょうぶ) : 괜찮다
貯(た)める : 저축하다
そんなの : 그런것
どうやって : 어떻게해서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71>

八字还没一撇儿

아직 멀었어요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71>

任那 (임 나)

맡길 임, 어찌 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란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까지 김해(金海)지방에 두고 있던 일본의 기관이다. 이 기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紛紛)하다. 일본 쪽에서는 임나일본부가 고대로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혹은 일본의 주민자치 기관, 또는 군사지배 기관, 외교기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한·일간에 풀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임나'가 나라이름으로 출현하는 기록으로는 일본서기(日本書紀)나 광개토왕비문(廣開土王碑文)이 있다. 따라서 이 임나라는 명칭을 백제나 신라 쪽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왜국과 고구려에서는 가락국(駕洛國) 또는 가야(伽倻)를 가리키는 말로 상용한 듯하다. 따라서 임나일본부란 남해지역을 기반으로 강력한 해상왕국을 이루고 있던 금관가야에 설치하였던 일본의 영사관 같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금관가야나 대가야는 임나일본부를 이용하여 왜국과 아주 친한 것처럼 꾸며서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였던 것이다. 가야의 나라들은 500년 넘게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있으면서, 때로는 멀리 고구려의 힘을 빌려 백제에 맞서거나, 또는 신라에 기대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